

100% 익명성이 보장돼야

에이즈검사 활성화방안

:: 이상은 본회서울특별시회 사무국장

에이즈 검사는 초기진단 차원에서의 개인의 치료와 건강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에이즈예방 차원에서 타인에게로의 전파차단을 위해 더욱더 중요하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HIV 검사를 받고 자신의 HIV 감염상태를 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안전하지 못한 성행동을 하는 비율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HIV 검사에 의해 발견된 국내 감염인구는 2004년 3월말 기준으로 2,679 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적게는 이 숫자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의 인구를 감염 잠재인구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의 인구가 자신

의 HIV 감염상태를 모른 채 성생활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낮은 콘돔 사용률(2003년 본회 상담실에 문의해온 총 13,200건의 상담 중 성접촉 관련 질문 7,300건의 상담기록을 보면 콘돔을 사용한 사람이 전체의 27%이고 콘돔사용을 하지 않은 사람은 73%에 달해 4명 중 한 명만이 콘돔사용의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로 판단해보면 이들 잠재인구의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고 있고 에이즈가 이들을 통해 소리 없이 전파되고 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에이즈 검사를 활성화해서 잠재 HIV 감염인구를 발견해내는 일은 교육홍보사업 못지않게 에이즈 예방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에 대한 두려움,
신분노출 우려로 검사 기피

에이즈 검사는 대상에 따라 크게 의무검사, 희망(익명)검사, 기타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검사는 성매매종사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2002년 한해 서울시에서 총 22,523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다. 반면 희망 및 익명검사는 총 10,320건이었고 이중 48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었다. 2003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총 94,814건의 검사 중 123명이 양성으로 발견되었는데 이중 익명검사 건수는 1,862건으로 이중 60명이 양성자로 발견되어 전체 발견자의 50%가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익명검사가 가장 효율적인 검사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익명검사에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먼저 완전하게 100%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병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완전 익명검사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보건소 역시 양성자 발견 시 역학조사 분제가 있어서 모든 보건소가 100% 완전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검사 전후 상담을 해주는 검사기관이 거의 없다. 병원 및 보건소에서는 여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사전후 에이즈 상담을 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에이즈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에이즈 검사 서비스를 위한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셋째, 검사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이 만연하다. 이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하며, 구체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 양성판정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배우자 등 주위사람에게 검사결과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양성 판정시 국가에 의해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두려움과 편견이 검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에이즈검사 필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에이즈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건소에서는 익명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100% 완전 익명검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의 경우 에이즈검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에서 질 높은 상담과 함께 검사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에이즈포비아 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단체에서의 검사는 지역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즉석진단 키트의 비용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경우 검사에서 통보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실제 국내 한 벤처기업에서 즉석진단키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동성애자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구매 행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 완전 보장되고 검사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에이즈 검사체계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사와 함께 제공되는 상담의 질도 꾸준히 제고되어야 한다. 질 높은 상담을 충분히 제공할 경우 검사결과 통보가 쉬워지고 신뢰성이 구축된다면 양성판정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국가에서 감염인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현행 실명관리체계를 익명관리체제로 전환해보는 것도 조심스레 고려해 볼만하다. 이 경우 에이즈 검사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 HIV 감염인을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성으로 판정시 등록을 하지 않고 정부에 성별, 연령, 감염경로 등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검사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철저한 익명 및 비밀 보장
- 검사전후 상담 실시 및 상담의 질 제고
- 관련민간단체에서 에이즈검사 실시
- 검사결과 소요기간 단축
- 즉석진단키트의 보급
- 실명관리에서 익명관리로의 에이즈 관리체계 전환

이외에도 외국에서처럼 결핵검사, 미약검사, 성병검사, 산부인과 산전 검사이시 에이즈 검사를 권장 유도하고 동성애자, 성매매종사여성 등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이동, 방문, 길거리 검진 등을 강화하면 에이즈를 조기에 발견하여 에이즈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